

2011년도 정기총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開會辭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협회 대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협회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100만 전기인을 포용하는 국내 유일의 전기인 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제49차 정기총회입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1963년 창립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디만, 전기계의 원로 분들과 선배님들의 값진 희생과 봉사정신에 힘입어 49년 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13만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자랑스럽고 힘 있는 전기인 단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기인들은 후배 전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한 해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영향과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신규발주 물량이 감소되어 설계, 시공, 감리 및 안전관리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 예년에 비하여 약 2배정도로 신규발주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도시 기반 구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여러 가지 건설호재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전력산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는 전국에 수천여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고,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는 전기기기로 변신하게 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기와 통신기술이 융합된 U-city설비 및 지능형 전력망구축설비 등 새로운 전력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인들도 세계적으로 변화무쌍한 전력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어 새로운 전력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해 놓은 전력강국의 명성을 잘 이어가기 위해 우리 100만 전기인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녹색 전력강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건설 등 타 업역간 생존경쟁심화 및 안전관리 제도의 완화추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협회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협회는 전기인의 권익과 전력산업계의 발전 등 전력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와 우리협회가 공동으로 동 연구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및 전기인으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사업 등 지능형전력망구축사업과 관련 새로운 전기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전기의 업역 확대를 위해 지능형전력망구축관련 법률 제정 시 능동적으로 대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지난해에 개최한 "국제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은 해외 35개국, 12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올해 초 지식경제부로부터 유망전시회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습

니다.

스마트그리드 시대에 핵심인력인 전기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지난해 전기인의 날인 11월 1일에 개최한 "전력기술진흥대회"는 전국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전기인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는 협회와 전기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지방받아 운영중인 "취업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 회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지난해 5월에 발대식을 가진 "e-사랑 자원봉사단"도 더욱 활성화하여 진정한 나눔을 공유하는 협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올해는 전력산업의 기술변화 및 법제도의 변화를 예측해 볼 때, 우리 전기업계 및 전기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전력산업계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금년을, 회원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응원에 힘입어 회원여러분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대의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 그리고 직장에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최광주**

致辭

을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스마트 시대에 맞게 혜안(慧眼)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의 업무 환경에 맞는 기술개발과 치기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보다 현실적인 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협회는 '63년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로 태동하여 올해로 창립 49주년이 되는 전기계 유일한 인적단체이며, 국제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설비전과 전국의 전기인이 함께하는 전력기술진흥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향상은 물론 내실을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은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1에서 올해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TWO RABBITS" 즉 '두 마리 토끼'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매우 모순된 두 마리 토끼를 말합니다. 협회도 회원의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서 서로 상반된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이 모순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광주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협력하여 협회 업무의 효율성과 회원 서비스 향상 등 모순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 전기계 인적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전력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과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실장 김경원

2011년도 정기총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존경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김재경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노영민 의원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님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최광주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100만 전력기술인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49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전력기술진흥에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의 전력기술인 여러분!

새해 들어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1월 17일 최대전력수요가 7,314만kW를 기록하면서 올 겨울 들어 4번째 최고기록을 경신 하였습니다. 이날 최대전력시 공급능력은 7,718만kW, 예비전력은 404만kW(예비율 5.5%)까지 떨어져 비상수준(예비전력 400만 kW미만)에 초 근접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파·폭설의 영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되어 사전에 전력을 차단하거나, 실제로 수천·수만 가구의 정전사태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큰 우려 없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전력기술 발전



2011년도 정기총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祝辭

전력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100만 전기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발전한 것은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 동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신 전기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울러 우리나라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전력기술인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현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중이며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가인 우리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절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전기인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력분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전기인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전력기술인 여러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2011년도 정기총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전력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경입니다.

먼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제49차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지구촌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약 1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지난해 소형 전기차 조기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이 착수되는 등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며, 이에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10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祝辭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융·복합 기술 등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인이 앞으로 펼쳐질 녹색성장 시대에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인력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기술개발과 자기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내외 귀빈과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김재경**



2011년도 정기총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전력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력기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제49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초청되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써, 협회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동료전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며, 행사장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나서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해 우리 전력산업계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녹색성장 및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축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기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계의 활성화는 물론,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전기인들의 위상 또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祝辭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 많으며,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도 이공계도 출신입니다.

또한 세계의 지도자 중 한명인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전기기술자이며, 중국 최고위직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기인이 더욱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전기계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국회에서도 전력산업계의 현안사항 해결과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결실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노영민**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한 원년의 해

2011년도(제49차) 정기총회 개최...

100만 전기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한국전력 기술인협회(회장 최광주)가 지난 2월 24일(목)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내외 귀빈과 협회 대의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49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녹색성장의 주역인 전기인의 위상제고와 격려를 위해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실장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김재경 의원, 조경태 의원, 노영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창선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등이 귀빈으로 참석하여 전기인들을 응원하였다.

최광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100만 전기인들이 급변하는 전력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전력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말하였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해 놓은 전력강국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100만 전기인 모두 하나 되어 녹색전력 강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올해를 '회원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법제도 개선 및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이러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치사를 통해 한파로 인해 전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기인들의 부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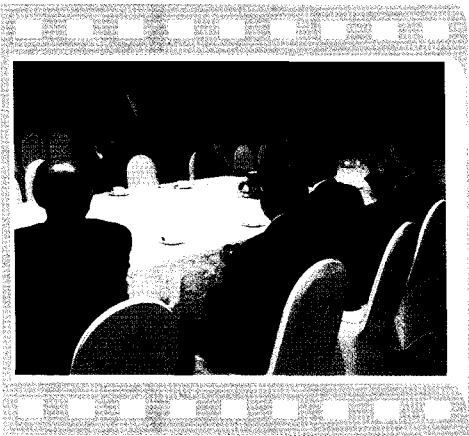
- ①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실 김정관 실장 ②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③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
- ④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 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 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
- ⑦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

노력으로 큰 문제없이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각자의 업무환경에 맞는 기술개발과 자기계발을 통해 스마트 시대를 맞이 하자고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법령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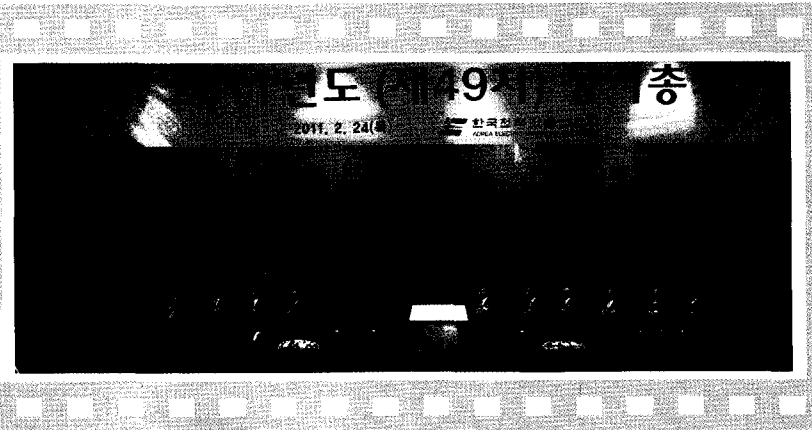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전기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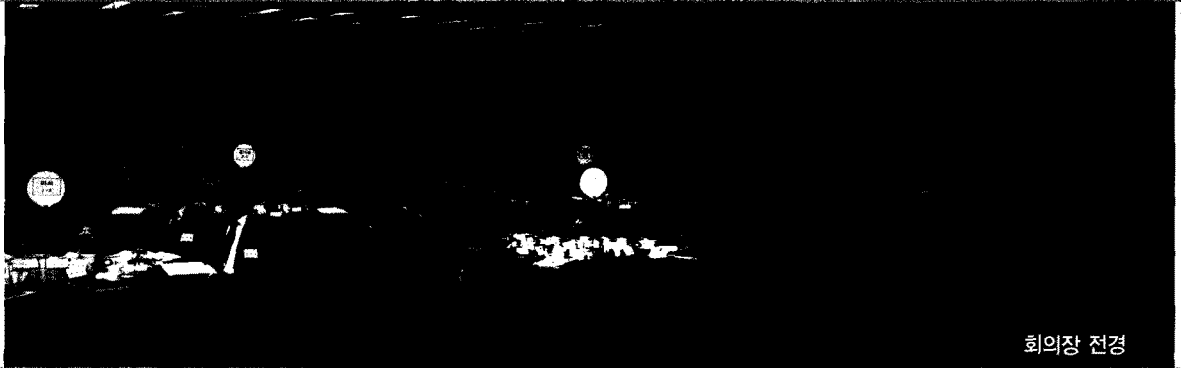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기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전기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기인으로써 한 사람인 노영민 의원은 아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우리 전력산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나 녹색성장 및 원전수출 등으로 전기계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전기인이 더욱 존경받고 대우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 VIP실 담소 모습
▼ 내외 귀빈들 국민의례 모습





회의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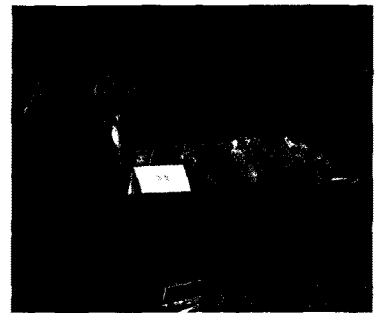
이러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재경 의원은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녹색성장을 위한 100만 전기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융·복합 기술 등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주역이 되어 맞이하자고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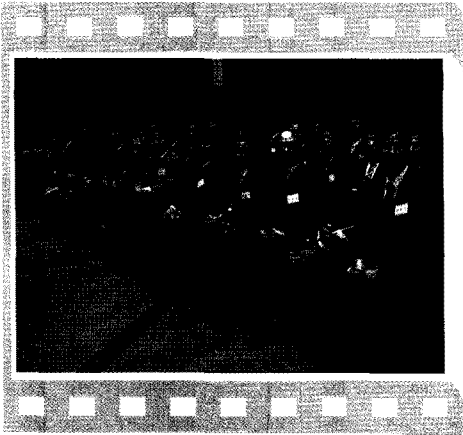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경태 의원은 협회의 제49차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전기인의 발전을 위해 국회 및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전기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력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전기인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주)국제 전기안전기술공사 대표이사 남시욱 외 13명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특별시 표창은 (주)성산 권찬용 대표이사 외 14명이, 협회장 표창은 제일전기기술공사 김광웅 이사 외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또한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과 협회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말 정년퇴직하신 신화영 前직원에게 협회장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21개 시도회 중 최우수 시도회는 부산광역시회, 우수 시도회에는 대구광역시회가 선정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 대의원을 맞이하는 최광주 회장
▼ 회의 속계를 선언하는 최광주 회장





▲ 영예로운 수상자들 모습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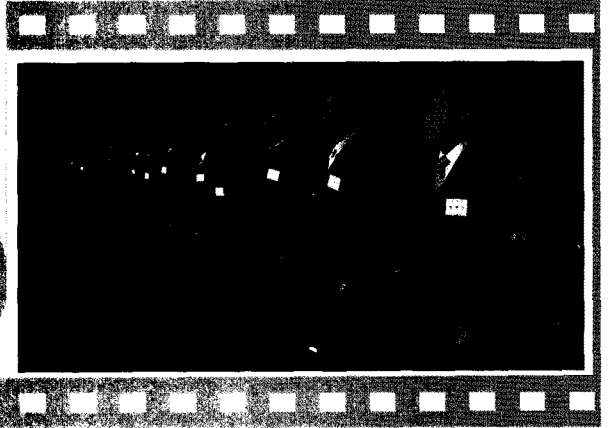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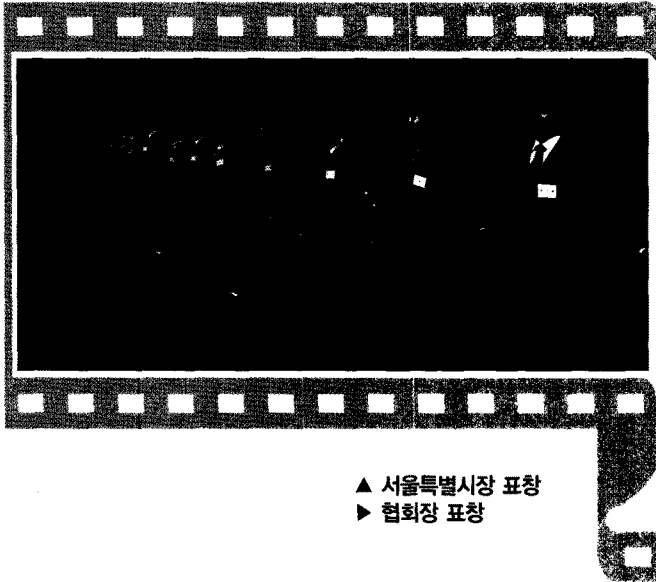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소 속	직 위	성 명
(주)국제안전기술공사	대표이사	남시욱
기술사사무소세일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전영록
(주)드림	이 사	김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과장	박환수
상계주공15단지관리소	관리실장	정동교
(주)중앙전기관리기술단	대표이사	김태중
(주)유일ENG	대표이사	임희정
(주)현대전기관리	대표이사	정재강
(주)경기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조원제
경북전기안전관리공사(주)	대표이사	송정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 리	이상우
다산전력(주)	대표이사	류익선
(주)서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안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과 장	김시복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소 속	직 위	성 명
(주)성산	대표이사	권찬용
(주)웅광전기	상무이사	김후중
(주)하나기연	과 장	나종엽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사무소	이 사	서강진
(주)일성종합기계	전무이사	지효근
(주)삼우전기건설터트	이 사	양영준
(주)신담엔지니어링	이 사	오만열
월드전기안전(주)	부 장	이광길
한양전설(주)	상무이사	이덕영
대화전력기술(주)	과 장	이상민
(주)동양티피티	이 사	이영수
(주)전우이피씨	과 장	임삼욱
(주)정우종합기술	부 사 장	장호경
(주)청풍이엔에스	부 장	서화영
중앙전기안전관리(주)	이 사	함덕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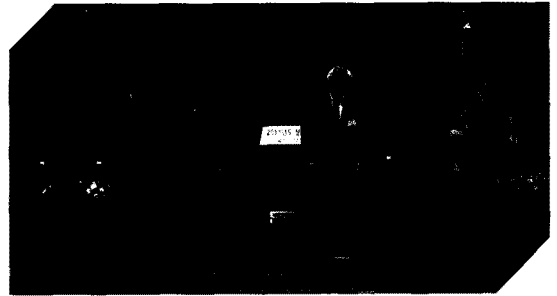
2011년도(제49차) 정기총회 개최



▲ 서울특별시 표창
▶ 협회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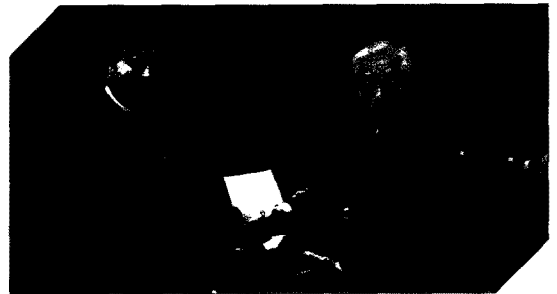
협회장 표창

소 속	직 위	성 명
제일전기기술공사	이 사	김광웅
한양전기안전관리	과 장	김동철
(주)한화옥삼시티	대 리	김은태
상계마들대림아파트	전기과장	김일연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준
(합)피이피그린	부 장	김지태
(주)세종전력기술단	과 장	박대희
(주)해광	차 장	박상호
(주)에디슨전기	이 사	박세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과 장	서문교
중앙에스코(주)	이 사	설성환
(주)이에스안전공사	대표이사	성철호
조은전기안전관리(주)	대표이사	신문수
한양전기안전관리	이 사	이보규
전북전기사업소	소 장	양석만
(주)경북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장재석
에이스전기안전(주)	대표이사	한병건



우수시도회 표창

최우수시도회	부산광역시회
우수시도회	대구광역시회



협회장 공로패